

지명에 담긴 전주이야기

김규남 || 전주대 책임객원교수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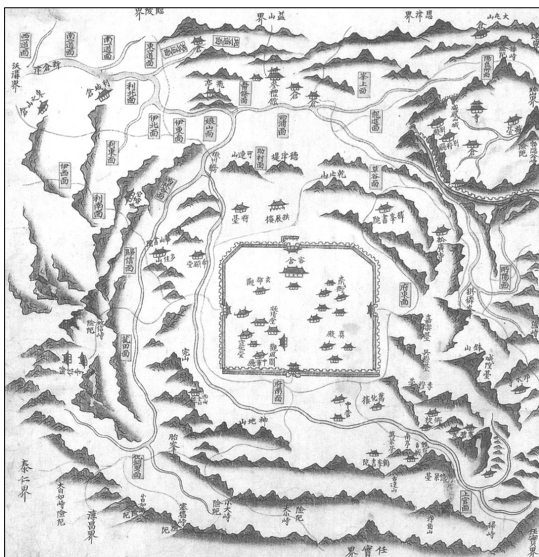
1. 들어가기
2. 지명 속 백 년 전의 전주
 - 1) 전주부성과 근교
 - 2) 중바우에서 칼바우까지
 - 3) 좁은목에서 청수코테기까지
3. 행정 명칭의 변화와 전주의 확장
 - 1) 전주성의 파괴와 식민 시대
 - 2) 해방과 동란 직후
 - 3) 1960년대 이후
4. 나오며

1. 들어가기

후백제의 도읍이었으며, 조선 건국조 태조 이성계의 본향이고, 조선시대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 전체를 관장하던 주요 도시였던 전주는 이제 예향의 도시라는 수식어가 붙은 지방 중소 도시로 그 위세가 축소되었다.

여느 도시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변모되어 왔던 것처럼 전주 또한 이미 그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고 당시에 세워진 식민도시로의 도시 개발 계획이 진행되어 왔다. 이는 해방 이후에도 이미 세워진 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훼손된 역사와 문화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이 그 방증이다.

전주는 그런 점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 그 훼손의 정도가 심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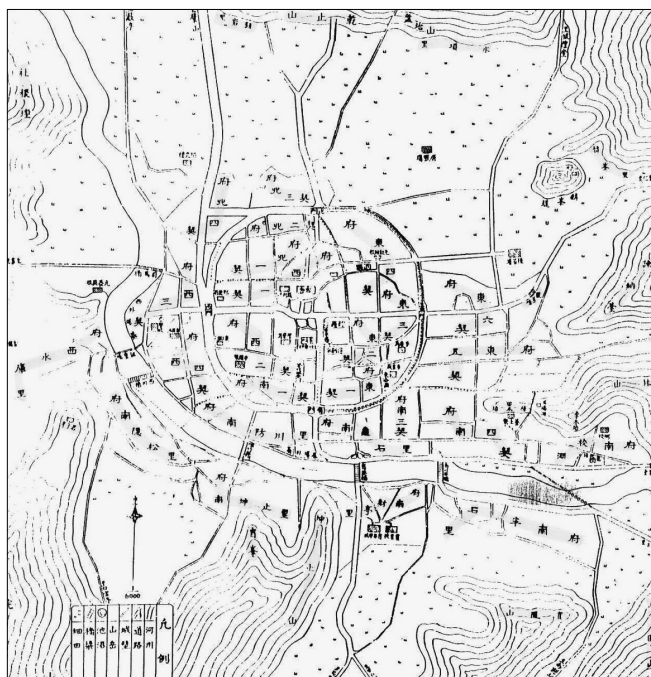


〈그림 1. 18세기 후반, 전라남북여지도의 전주〉

곳 중 하나였다고 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시대 전주가 건국조의 관향이었으며 그와 관련된 주요 유적지들이 산재해 있어서 전주는 가히 조선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시였다. 왜인들이 전주를 훼손하는 데는 명백

하게 그런 속셈이 숨겨져 있었으며 그로부터 비롯되는 전주의 식민 도시화는 과거와 현재를 단절시키기에 충분했다.

조선시대 전주의 지명을 살피는 일은 조선 시대 전주의 원형을 가늠해 보고, 그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는 백여 년 전 전주의 배경을 이루는 산과 물길 등의 자연적 조건과 관련된 지명들을 살피고, 이런 자연적 배경을 중심으로 전주의 사회적 삶과 문화적 토양이 그 위에 수놓인 전주의 다양한 삶의 양상들을 살피게 될 것이다.



〈그림 2. 부사면도, 구한말 전주의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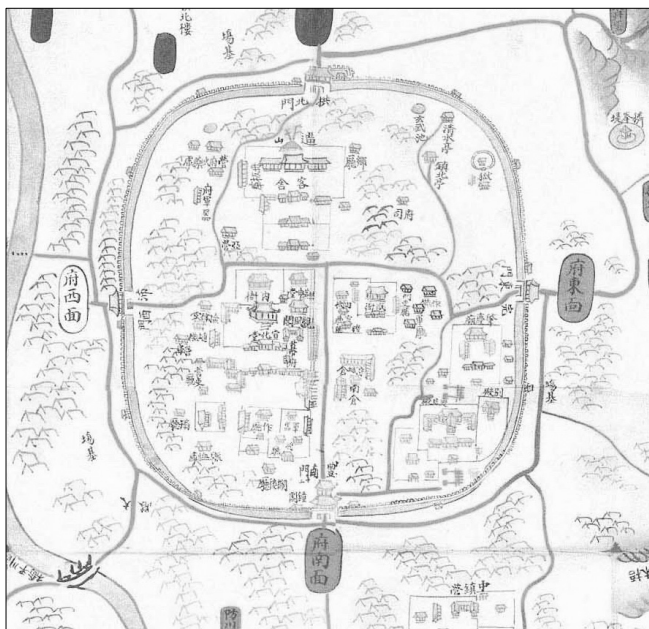
2. 지명 속 백 년 전의 전주

1) 전주부성과 근교

문헌자료에 남아 있는 당시 전주의 행정구역을 좇아 전주성과 근교가 어떻게 구획되었는지 살펴보자.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 소장, 조선 말기 전부와 근교를 그려놓은 부사면도(府四面圖)에 표시되어 있는 행정 구역을 보면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한 전주의 중심부는 서문에서 동문, 남문에서 북문에 이르는 십자형 도로를 중심으로 부북면, 부동면, 부서면, 부남면으로 나뉜다. 즉 동문에서 서문을 관통하는 도로 위는 부북면과 부동면, 도로 아래는 부남면과 부서면으로 나뉘며, 다시 남문과 북문을 중심으로 동편은 부동면과 부남면, 서편은 부북면과 부서면으로 나뉜다. 부북면은 부북 일계, 이계, 삼계, 사계로 표시되어 있으며, 부동면은 남문, 북문간 도로의 동편 전체를 가리키는데, 남문에서 동문에 이르는 성벽 안쪽에서부터 부동일계, 이계, 삼계, 사계로 나뉘고 성벽 밖으로 부동오계와 부동육계가 나뉘어 있다. 부서면은 동서문 도로의 남쪽, 남북문 도로 서쪽 일대로 부서일계, 이계, 성 밖으로 부서삼계, 사계 그리고 전주천 넘어 빙고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부남면 가운데 성문 안에 있는 구역은 부남일계로 남문에서 서문으로 이어지는 성벽 안쪽 지역이 이에 속한다. 부남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동네 이름들을 갖는다. 부남 방천리는 남문 밖에서 전주천에 이르는 서쪽 지역, 구석리는 남문 밖에서 전주천에 이르는 동쪽 지대, 부남 삼계는 구석리 동편, 부남사계는 오목대 주변, 향교 주변은 교동, 전주천을 넘어 지금의 서완산동 부근은 은송리, 동완산동 부

근은 곤지리, 서학동 부근은 사정리, 동서학동 부근은 반석리로 표시되어 있다.

전주부성 안에는 객사와 전라감영, 전주부영이 중심부에 있었으며 주변은 상인이나 평민들의 거주 지역들이 북문에서 서문을 거쳐 남문으로 이어지는 성벽 안쪽에 동네를 이루고 있었다. 당시에 이 동네들에 대한 지명이 있었을 것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구전 자료조차 남아 있지 않다.



위 지도는 19세기 전주의 부성과 인근의 모습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주부성 내의 주요 건물들은 그 자체로 지명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객사, 한백루, 향교, 경기전 등이 지금도 그 건물 명칭이 지명처럼 사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

을 것이다. 우선 조선시대 도시 형성에 있어서 부성의 부속 건물로 1묘, 1사, 2단 조성이 관례화 되어 있어서, 향교의 문묘, 성황사(동고 산성터), 사직단(현 신흥고등학교 자리), 여단(동초등학교 뒷산) 등이 배치되어 있었고, 당시 부성과 관련 건물들로 객사, 선화당, 중진영, 경기전, 향교 등을 비롯하여 인근의 화산서원(1578년), 한 벽당(1400년), 공북루(1461년 이전으로 추정), 군자정(1677년), 회현당(1700년), 다가정(1712년), 읍양정(1766년), 청운정, 백운정(19세기 말) 등은 전주부성과 인근에 위치한 주요 건물들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지명처럼 사용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이다.

부성의 부속 건물들과 더불어, 사방에 세워진 네 문은 그 자체가 지명이다. 동문(完東門), 서문(沛西門), 남문(豐南門), 북문(拱北門)이 그것이며 이 네 문은 특히 장이 형성되어 인근의 백성들이 물물교환이나 상업적 교류를 위해 모이고 흩어지는 중요한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1893년 경 전주의 주요 장으로는 동문밖장, 서문밖장, 남문밖장, 북문밖장이 있었다. 동문밖장은 한약재와 특용작물을, 북문밖장은 포목과 잡곡을 주로 거래하였다고 한다. 특히 남문밖장을 위시하여 전주천변은 천을 따라 온갖 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곳이다. 싸전다리 밑의 싸전, 매곡교 부근의 쇠전, 설대전, 은송리에서 초록바위까지의 나무전 등은 그 전형적인 예이며 그 자체가 하나의 지명처럼 사용되어 왔다.



〈그림 4. 이 그림은 1900년 전후의 것이다. 정면으로 보이는 산이 중 바위, 전주천을 중심으로 왼편은 향교와 남문시장, 오른편은 천변으로 형성된 장옥의 모습이다.〈전주국립박물관 1998〉〉

전주천변은 특히 전주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온 생활공간 중 하나이다. 한벽루에서는 유생들이 풍류를 즐기고, 각시바우, 서방바우에서는 아이들이 고기잡고 먹감기로 유명했으며, 특히 남천에서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하기도 하고 빨래를 삶아 널기도 하는 장관은 남천표모라 하여 완산팔경 가운데 하나로 꼽을 정도였다. 그리고 싸전다리, 매곡교, 서천교 등에서는 온갖 장이 열리는 장터로 상용 전주천변은 사람이 끊일 날이 없었다.

전주천은, 전주부성을 기준으로 부성의 남쪽을 흐르는 천은 남천, 서북진하며 방향을 튼 부근을 서천으로 불린다. 그 외에도 각각의 다리와 인근의 장 이름이 전주천의 부분 부분을 나누어 명명하는 지명으로 사용된다. 남천에는 예전부터 다리가 있었는데, 영조 때 다리가 유실되어 정조 15년에 다시 놓았는데 다섯간의 홍예교였다.

이를 줄여 통상 홍교라 불렀다고 한다. 그후 광무 5년 관찰사 조한국이 개축하여 평교를 만들었으나 다시 수해를 만나 유실되고 1907년 부내 유지들이 사재를 털어 수축하였다고 한다. 그 많은 곡절만큼이나 남천교의 이름 역시 남천석교, 새다리, 안경다리 등등의 이름을 거쳐 지금의 남천교에 이른다.

남천은 싸전다리를 지나 초록바위 앞에서, 흑석골에서 흘러내린 공수내와 만나 세를 불린다. 전주천을 중심으로 부성 편과 그 반대편에 천변이 만들어 놓은 공간을 이용하여 양쪽 모두에 장시 서 있었다. 싸전다리를 시작으로, 매곡교를 건너 맏골 앞으로는 쇠전이 있어서 쇠전강변으로 불렸으며, 매곡교에 담배를 파는 장사들이 좌판을 벌인 데서 매곡교를 연죽교, 설대전다리로 부르기도 했다. 특히, 매곡교에서 서천교 사이에 책방거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책방거리는 전주천변에 제방이 쌓이기 전에 있었으며 전주천 물길에 가장 가깝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곳이 바로 춘향전, 홍부전, 숙영낭자전 등이 출판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간 한국고대소설 출판 본거지였던 셈이다. 이곳을 지나면 소금전이다. 지금의 완산교 자리는 예전에 소금전이 있어서 염전교 혹은 소금전다리라 불렀다. 소금전을 끝으로 천변의 시장은 끝나고 서문에서 천변을 건너 천양정, 화산서원 등으로 통하는 사마교가 있었다. ‘사마교’는 지금의 신흥학교 부지에 사직과 향교 그리고 생원과 진사들의 집회소인 사마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마교를 지난 서천은 도토리곶, 어은곶, 구석뜸, 청수코टे기 등의 생활용수로 쓰이고 특히 도토리곶 앞에서 오른쪽으로 한 줄기를 내어 장곶들쪽으로 흐르는데, 이 물을 이용하여 물방아를 돌렸다는 물방앗골, 쌍물방앗골, 비석거리, 숲정이를 지나 ‘모래내’에서 흘러내린 ‘검암천’에 합수된다.

2) 중바우에서 칼바우까지

전주시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전주 중앙동 부근의 건물 위에 올라서 보면 전주는 남쪽으로 높은 산줄기에서부터 북진하는 산줄기가 동서 방향으로 뻗어 내리는 형상이다. 현재는 이미 개발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산줄기의 원형을 가늠하기조차 어렵지만, 응당 자연적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에 알맞게 어울려 살아온 선조들의 삶의 태도로 본다면 이 지형적 조건이야말로 전주 형성의 중요한 배경이었음에 틀림없다.

주변의 자연적 상태를 훼손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그것을 중요한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회적 삶이 이루어지던 시대 즉 지금부터 약 백년쯤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전주 부성은 바로 그 길고 두툼한 산줄기들의 사위에 포근하게 안겨 있는 모습이다. 전주의 고지도들을 통해서 보면 그 양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되는데, 좌우로 두른 산세는, 동쪽이 그 폭과 산세가 훨씬 품이 넓고 크며 서쪽은 그에 비해 다소 짧고 뭉뚱한 편이다. 어떻게 북을 향해 동서로 뻗은 산줄기 덕분에 그 안의 평야부는 전주부성이 남쪽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평야부가 가련산까지 계속 된다.

조선시대 혹은 이미 그 이전 시기 즉 풍수를 중심으로 자연을 이해하던 당시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지산(乾止山)에서부터 곤지산(坤止山)에 이르는 선은 전주의 향방을 가늠하는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건지산은 현재의 전북대 병원 뒷산을 가리키며 곤지산은 전주소서관 자리, 초록바위 뒷산, 이팝나무 군락지의

봉우리를 가리키는데, 이 두 산의 이름이 바로 주역에서 태극을 중심으로 하는 건곤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웅당 전주의 간산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건·곤지산의 축을 중심으로 보면 전주의 북서방향에 뚫려 있다. 바로 이 자리가 풍수상으로는 빈곤한 지역이라고 여겨 왔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지명이 '진북(鎭北)'이다. 건지산 줄기가 덕진제 앞에서 끝나고 그 맞은편에 솟은 가련산(可連山) 또한 북쪽이 허한 점을 막아보려는 비보풍수적 차원에서 건지산과 이어져야 마땅한 산이라는 의미로 명명된 것이다.

어떻든 세간에서 전주의 지형을 배가 가는 모습(行舟形)이라고 하는 까닭도 그런 지형적 조건에 대한 상상력을 동원한 해석에서 비롯된 일이다. 인간이 이미 자연 위에 군림한 지 오랜 까닭에 산자락 하나쯤이야 맘만 먹으면 잘라내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이미 자연과 조응하는 문화는 호랑이 담배 먹던 이야기로 하대를 받지만, 산자락 하나하나에 부여한 전주 사람들의 상상력은 현대인의 자연관과 비교가 되지 않는 매력이 있다.

우선 중바위에서 출발하여 전주부성의 동쪽을 감싸 안은 산자락의 중심에 기린봉이 있다. 기린봉은 봉우리의 모양이 기린의 등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 산에 기린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역시 기린의 상서로움을 감안한 것이 틀림없다. 즉 동양에서의 기린은 서양 기린과 달리 상상의 동물이다. 즉 성군이 나서 왕도가 행하여지면 나타나는 상서로운 동물인데 생초를 밟지 않고 생물을 먹지 않는다 하여 그 성품이 자애롭고 인자함을 상징하며 그 모양은 사슴 같고 이마는 이리, 꼬리는 소, 굽은 말과 같고, 머리 위에 뿔 한 개가 있다고 한다. 바로 그 상서로운 기린이 전주부성을 감싸 안은 까닭은 이곳이 태조 이성계의 본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기린봉에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는 것이 전주의 여덟 가지 아름다운 풍경 가운데 으뜸으로 쳐 기린토월(麒麟吐月)이라 불린다.

중바위에서 오목대에 이르는 산줄기를 발산, 발리산이라고 부른다. 발산(鉢山)과 발리산(發李山)은, 하나는 중바위와 관련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이목대, 오목대와 관련된다. 발산이 중바위와 관련되는 것은 발(鉢)이 중들이 사용하는 밥그릇 즉 바리때라는 뜻으로 산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고 상상하는 데는 그 주봉이 중바위(僧岩山)²²⁾인 데서 비롯된 것이다. 발리산은 말 그대로 이씨들이 발원한 산이란 뜻으로 태조 이성계의 고조인 목조²³⁾가 이곳에서 성장하였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종종 이 산을 그저 이목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목대에는 예전에 호운석이나 장군수와 같이 목조의 유년기와 관련된 지명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역시 문헌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인 듯하다.

호운석은 목조가 유년기에 아이들과 더불어 병정놀이를 하곤 하

22) 이곳은 현재 치명자산으로도 불린다. 근자에 이곳에 천주교단에서 순교자의 묘역을 조성하여 성지화하였다. 이곳에 묻힌 천주교 순교자는 유항검과 그의 처 신희, 큰아들 유중철과 며느리 이순이, 둘째 아들 유문철과 제수 이육희, 조카 유중성 등 일곱사람이다. 이들은 순조1년(1801) 신유박해 때 4개월에 걸쳐 전주남문밖 전주옥과 북문밖 숲정기 등에서 처형되어 멸족되었다. 살아남은 노복들과 친지들이 은밀하게 사체를 거두어 완주 이서 제남리에 가매장하였다가 1914년 전동성당 보두네 신부와 신도들이 이곳에 이장하였다. 순교자묘는 지방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분들의 숭고한 순교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1994년 묘 아래 성당을 지었다.

23) 목조의 이름은 안사(安社)로 그는 전주의 토호이었으나 지전주사(知全州事)와 산성별감(山城別監)의 비위를 거슬려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눈치 채고 가솔과 토착인 170여 호를 거느리고 삼척으로 이주하였다. 삼척에 정착한 지 얼마 뒤 공교롭게도 전주 산성별감이 삼척 안렴사(安廉使)로 부임하여 다시 일행을 거느리고 의주로 옮겼다. 얼마후 의주가 원나라에 예속되고 안사의 세력이 점차 확장되자 원나라에서는 그에게 다루가치라는 벼슬을 제수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였는데, 어느날 비가 몹시 내려서 바위 밑으로 뚫린 굴로 비를 피해 들어갔다고 한다. 그때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 아이들을 위협했고, 그 때 아이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 호랑이 앞에 던지고 호랑이가 문 옷의 임자가 아이들을 대신하여 호랑이의 먹이가 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목조의 옷을 호랑이가 물게 되었고, 목조가 먹이가 되기 위해 굴에서 나가자 그만 굴이 무너져 그만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 이목대에서 뻗어내린 산줄기의 끝자락에 오목대가 있다. 오목대(梧木臺)는 이성계가 고려말에 지금의 운봉에서 왜구를 무찌르고 돌아오다가 승전을 자축하여 연회를 베풀었던 자리이다. 이때 이성계는 자신이 대업을 이룰 뜻을 암시했었고, 그를 간파한 정몽주가 자리를 박차고 지금의 남고산성 성벽의 하나인 만경대에 올라 이성계를 경계하는 글을 바위에 새겼다고 한다.

어떻든 그렇게 보면 발리산, 이목대, 오목대는 모두 조선 건국조 이성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 산줄기의 끝자락에 태조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경기전(慶基殿)을 세워 둔 점도 이곳이 조선 왕조의 성지 중의 으뜸가는 성지였음을 시사한다. 이 산을 중심으로 한벽루가 있다. 이곳은 임실 슬치에서 발원하여 전주로 들어오는 전주천이 시작되는 곳이다. 예전에 물이 많던 시절에는 한벽청연(寒碧淸煙)이라 하여 한벽루 앞에서 피어오른 물안개가 서서히 사라져 가는 모습이 또한 절경이라 하였으며, 오목대 남쪽에 자리한 향교와 오목대가 또한 가까워 전주의 선비들이 이곳에서 전주천을 바라보며 풍취를 즐겼 왔던 명소였다.

그러니 조선을 제국주의의 제물로 삼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곳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 들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인들이

파괴를 일삼으면서도 명분은 개발이었던 것처럼 이곳 역시 철로 개설이라는 명분으로 이목대에서 오목대로 이어지는 발리산의 정기를 잘라냈던 것이다. 조용한 산자락에서 둘러 앉아 낭랑하게 글을 읽던 향교 뒤로 또 전주천을 바라보며 시를 읊던 한벽루를 떨거지로 남겨 초라하게 만든 채 일제의 철로는 조선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지나다녔을 것이다.

이때 구한말 전주의 큰 선비이었던 흠재(欽齋)²⁴⁾ 최병심 선생의 서술 퍼런 저항이 자만동, 옥류동 사람들 사이에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다. 당시 금재 선생의 집이 향교 뒤 지금의 자만동 근처였다고 한다. 이곳에 철로를 개설하기 위해 산자락을 파헤치는 것에 분개한 선생은 부득불 철로로 끊긴 발리산의 정기를 다리로나도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차의 진행을 몸으로 막아섰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목대와 이목대에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기차가 이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다가 다리가 놓이고 나서야 기차가 제대로 이곳을 다녔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회고한다.

중바위에서 기린봉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에서 곁가지로 흘러내리는 산자락 끝에 간납대라는 곳이 있다. 이는 사간과 헌납을 지낸 이기발, 이흥발 형제가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굴욕적인 조약이 맺어진 후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은거하였다는데서 그 벼슬 명칭을 따 만들어진 이름이다.

지금의 기린봉은 마당재와 가재미²⁵⁾가 모두 개발이 된 상태이기

24) 이 지역에서는 한자음과 ‘흠재’로 불리지 않고 ‘금재’로 불린다. 이 글에서도 이후 금재로 명명하기로 한다.

25) ‘가재미’는 중세국어 ‘ㄱ’+‘-의/애’+‘뫼’가 합해진 구 구조의 단어로 판단된다. ‘ㄱ’은 ‘가장자리’라는 뜻이어서 ‘가재미’는 전주부성을 기준으로 ‘가장자리에 있는 산’이란 뜻이다. 그러나 속설로는 가재미의 발음을 음

때문에 치맛자락처럼 펼치던 산으로서의 기개를 잃은 지 오래다. 하지만 100년 전 기린봉은 마당재를 넘어 서낭댕이로 이어져 반대산으로 솟아오른 산자락 하나와 가재미를 지나 안골 뒷산, 도당산에서 솟아오른 사위로 그 산기운을 굽이굽이 펼쳐 그 넓고 깊은 사위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우선 기린봉을 지나 마당재를 넘어 서낭댕이, 반대산으로 뻗어내는 산줄기로 시선을 옮겨보자. 반대산 줄기에서 처음 만나는 마당재는 말 그대로 고개이다. 고개가 마당처럼 넓어서 마당재라는 이름이 붙은 셈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서 고려시대에는 야단이 설치되고 법석이 열렸다고 한다. 당시에 도 기린봉 자락에 있는 선린사가 그 법회를 주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곳이 초파일 야단법석이 열리던 곳이었다고 하니 마당재가 그냥 마당재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마당재를 넘어가면 한배미를 거쳐 아중리 저수지, 왜망실²⁶⁾로 가는 길이다. 예전에 나무를 해서 살아가던 시절에는 마당재를 넘어 왜망실까지 나무하러 가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하니, 전주 사람들에게 마당재는 이래저래 사연이 깊은 곳이었다.

마당재에서 인봉리를 감싸고 도는 산자락은 술대백이²⁷⁾를 지나 서낭댕이로 이어진다. 서낭댕이는 전주의 동북부 지역으로 나가는 길목이다. 즉, 서낭댕이를 넘어 서면 모래내, 안골, 안덕원을 거쳐 소양, 진안으로 빠져 나가는 길이다. 지금 서낭댕이에는 굽은 소나

차하고 그에 어울리는 한자어를 대입하는 방법으로 가장피(可葬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이는 묘를 쓰기에 좋은 산이라는 뜻이다.

26) ‘왜망실’은 ‘왜(倭)+ 막(幕)+ 실(谷)’의 합성어로 왜란 당시 왜인들이 그 곳에 막을 쳤던 동네라는 뜻이다.

27) ‘술대백이’는 ‘술대+ 박+ -이’의 구성으로 ‘술대’가 박혀 있는 곳이란 뜻이다. 여기서 ‘술대’는 ‘숯대’가 서 있던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무 하나와 이곳이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음을 설명해주는 설명비가 서 있어서 시간의 다리를 놓고 있다. 서낭당이 왼편으로 솟은 봉우리에 지금의 동초등학교가 들어서 있고 그 뒤로 솟은 봉우리가 반대산 혹은 반다뢰이다. 그곳에 여단터²⁸⁾가 남아 있다. 여단은 조선시대 도시를 형성할 때 종묘, 사직 등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국가에 극심한 가뭄과 같은 재해가 있을 때 하늘에 제를 올리는 곳이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전주부성과 관련된 조선시대 전주의 범위는 이 반대산 자락 안쪽까지를 전주부성 지역이라고 할 만하다.

이 반다뢰 기슭에 무랑물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전주 유씨 집성촌이었다고 한다. 전주부성을 인접한 동네 가운데 무랑물²⁹⁾은 뒤로 산이 있고 앞으로 물이 흐르는 남향반이일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적당한 정도의 농토를 확보하고 있어서 여타의 동네에 비해 마을 조성의 입지적 조건이 매우 좋은 곳이다.

다시 기린봉에서 가재미 골짜기를 따라 가보면 도당산에 이른다. 도당산은 지금의 전주역쪽으로 한 줄기를 뺏어내리고 다른 한 줄기는 서쪽으로 틀어 매봉산으로 향한다. 가재미에서 도당산 그리고 도당산에서 매봉산쪽으로 뺏은 각진 산줄기에 들어앉은 동네가 안골이다. 안골은 서낭당을 넘어 소양, 진안 방향으로 가는 길과 전주부성의 북문을 나와 진밭들을 지나 명짓골, 아리랑 고개를 지나 고산으로 가는 길 사이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말 그대로 골짜기

28) 여단터 아래로 일제시대에 형무소가 들어선다. 여단터에 형무소를 만든 것 역시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29) ‘무랑물’은 흔히 ‘물(水)+왕(王)+물(마을의 중세국어 형)’이 합하여진 지명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 또한 발음에서 비롯된 한자식 음차지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에 들어앉은 마을이다.

한편 매봉산으로 흘러내린 도당산 줄기는 칼바우 쪽으로 한 가닥을 내리고, 다른 한 가닥은 북으로 흘러 지금의 전북대학교와 사대부고 사이를 지나 전북대 농과대학 쪽에서 마무리 된다.

한편 도당산과 매봉산 중간에 북쪽으로 산줄기가 뻗어 도천봉에 이른다. 도천봉은 동서로 한 줄기가 뻗고 북으로 다른 한줄기가 뻗어 장구봉으로 이어진다. 장구봉에서 갈미봉, 건지산을 지나 덕진연못 제방에서 기린봉으로부터 뻗어내린 산자락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백여 년 전 전주의 동부 산간을 형성하는 이 산줄기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자연부락들이 들어 서 있었다. 발리산과 간납대 사이에 낙수정, 지금은 군경묘지로 통하는 곳은 해방 후 피난민들이 들어와 정착한 마을이어서 백여 년 전에는 동네로서의 규모를 가진 주거지는 아니었던 듯하다. 다만, 발리산 줄기를 넘어 발리산 기슭에 자만동과 옥류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이렇다 할 농지를 갖지 못한 지역이어서 마을이 있었다고 해도 그 규모는 매우 작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간납대와 마당재 사이에 참나무정이, 웃마당재, 아랫마당재라는 자연부락들이 있었다. 이곳 역시 농지를 확보하지 못한 곳들이어서 농경 중심의 조선 시대에 큰 마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마당재에서는 주로 예전에 묵을 만들어 연명했다고 한다. 마당재에서 서낭당으로 넘어가는 산록에 인봉리가 있다. 마을 이름으로 ‘리’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그 근방에서 인봉리가 중심이 되는 큰 마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가재미와 안골, 큰 모래내, 작은 모래내 등은 각각 기린봉의 북쪽 산록에 형성된 마을, 한배미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줄기가 모래내로 이어지며 하천 주변의 작은 다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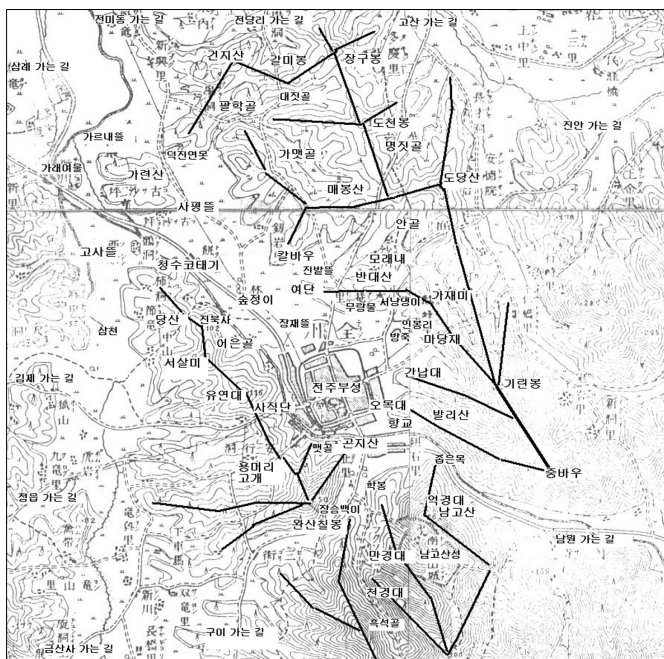
논들에 붙어 연명한 작은 마을들이 있었으며, 큰 모래내에 와서야 들다운 들 진밭들을 거느린 검암을 만나게 된다. 진밭들, 진밭다리 등은 반대산 자락 북쪽 매봉산 자락 앞쪽의 긴 골짜기 사이로 길게 흐르는 모래내를 따라 형성된 들녘으로 ‘진밭’은 ‘길-+-ㄴ’에 ‘밭’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지명으로 말 그대로 ‘긴 밭 들’ 즉 ‘길게 형성되어 있는 밭들이 모여 이루어진 들’이다.

‘검암’은 ‘앞검암’, ‘뒷검암’으로 나누어진다. 구암산 즉 지금의 KBS 방송국과 교통정보센터가 자리한 구암산(九巖山)을 중심으로, 앞검암은 진밭들을, 뒷검암은 사평들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다. 구암산이라는 이름은 예전에 이곳에 아홉 바위가 있어서 생긴 이름인 듯하다. 지금도 그와 관련된 바위 이름들이 노년층 제보자들 사이에 회자되곤 한다.

‘검암’은 지금의 금암동이란 동 명칭의 바탕이 되는 것인데 고유어로는 ‘칼바우’다. ‘칼바우’은 지금의 전주 KBS에서 기린로 쪽으로 내려선 바위를 가리키는데, 이 바위가 진북사 앞에 있었던 범바우와 마주 보고 있었다고 한다. 진북사 쪽의 범바우가 그 드센 기운을 드러내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 바로 이 칼바우였다고 한다. 칼바우 끝에는 ‘배맨바우’가 있었고 ‘배맨바우’ 주변을 ‘배맨자리’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모두 기린로가 개설되고 그 자리에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가 들어서면서 그 자취를 감추었다. 또한 KBS방송국 정문 앞에 공알바우가 있었는데, 뒷검암 사람들은 이 공알바우에 떼를 입혀 두었다고 한다. 이 떼가 벗겨지면 뒷검암리 여자들이 바람이 난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앞검암리 사람들이 자꾸 떼를 벗기는 바람에 마을 간에 싸움이 잦았다고 한다. 이 바위 또한 전북대 신정문 앞에서 전주고에 이르는 남북로가 개설되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어쨌든 ‘검

암'은 왜정시대에 들어 '금암(金巖)'으로 바뀌게 된다. 아마도 '범바우'의 기운을 막을 '검암'이 사라질 운명이 이 당시부터 예정되었던 것은 아닐까.

중바우에서 시작되어 기린봉에서부터 그 사위가 갈래를 타고 오르고 내리며 전주부성의 동부지대를 겹겹이 둘러싸던 산자락들은 네 줄기의 물줄기를 따라 크고 작은 마을들이 들어서 다량다량 붙은 논배미 밭 띄기에 매달려 연명해 온 셈이다. 불과 백여 년의 세월 동안 예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산도 물도 자연으로서의 운명을 다하고 도심의 일부가 되어 세월과 콘크리트 속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그림 5. 전주부성과 주변의 산줄기(김규남 · 이길재 2001: 28쪽)〉

3) 좁은목에서 청수코테기까지

중바우에서 칼바우까지가 전주의 중심부를 감싸는 동편 산줄기라고 한다면, 좁은목에서 청수코테기까지는 남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북진하며 전주부성을 감싸는 산줄기를 일컫는다. 전주부성의 남부 지역은 두툼한 고봉으로 막힌 듯하지만, 임실 슬치에서 발원하여 전주로 흘러들어 오는 전주천 물길이 흘러 들어오며, 중바우와 남고산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중바우 쪽의 산줄기는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주의 동부지역을 감싸고, 남고산에서 시작되는 산줄기는 학봉, 완산칠봉, 다가산, 유연대를 지나 청수코테기까지 전주천의 물줄기의 방향을 인도하며 전주의 남서부 지역을 감싸고 돈다.

남고산이 한벽루를 바라보며 가파르게 내려앉은 끝자락이 ‘좁은목’이다. ‘좁은목’은 말 그대로 남원, 임실, 관촌, 상관 방향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길목이며 가파른 산자락을 따라 휘돌아 들어서며 좁다란 길목을 형성하는 곳이다. ‘좁은목’과 더불어 남고산 기슭을 타고 들어오는 또 다른 길목으로 ‘노루목’이 있다. 이곳이 ‘노루목’이 된 까닭은 맞은 편 중바우 기슭은 호랑이가 엮드려 있는 형국이며, 이곳은 노루가 한가롭게 풀을 뜯다가 목이 말라 물을 찾다가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숨을 곳을 찾아 날뛰는 형국이라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전주시지 1997, 119쪽). 이는 여느 풍수지리상의 설명보다 재미나고 동적인 구성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여서 흥미롭다.

노루목을 넘어서면, 전주부의 부남면 반석리이고, 노루목에서 남고산 정상을 향해 가파르게 올라서면, 남고산성을 만난다. 남고산성은 둘레가 약 5400미터에 이르며 후백제의 옛 성터라고도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남고산성은 조선 순조 11년(1811년)에 관찰사 이상

황(李相璜)이 증축한 것으로 전해지며, 고종 8년 관찰사 이호준(李鎬俊)이 부남 삼리 반에 남관진(南關鎭)을 설치하여 남원에서 오는 도로를 지키게 하고, 남고산성 별감으로 하여금 겸직하여 6개월 교대로 주둔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전주를 엄호하는 주요 방어진지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으나 고종 32년 남고산성 별장과 더불어 남관진을 폐지함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남고산성에는 억경대, 만경대, 천경대가 있는데, 각각의 봉우리에 올라서면 억, 만, 천 가지 경관이 한 눈에 들어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고산성 내에는 웃산성과 아랫산성으로 불리는 마을이 있다. 이곳은 산성이라는 말마따나 난을 피해 들어오거나 세상을 등지고 들어와 살던 사람들에 형성된 마을이었다. 웃산성 안에는 관왕묘(關王廟)가 있는데, 이는 고종 34년(1895년) 전라도 관찰사 김성근과 남고별장 이신문의 발기로 각처 유지의 헌납을 받아, 관우의 제향을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사당이라고 전한다. 아랫산성은 예전에도 불과 몇 가호에 불과한 조그마한 마을이었다고 하는데 조선 중기 충신 이정란 선생의 사당인 충경공 사당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루목을 건너면 반석리를 만나는데 아랫산성을 내려 오면서도 반석리를 만나게 된다. 반석리는 조선말기 감영과 부영에 속한 노비들이 이곳에 수백호의 관노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는데, 신분 차별이 엄격하던 시기에 노비들이 옷과 신발을 갖추어 사인교를 타고 혼례식을 치른 것에 대해 이속들이 벌을 준 것이 도화선이 되어 1889년 이곳의 노비들이 일제히 봉기하여 성내에 췌도, 감영 앞까지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후 감영의 병졸들이 이들을 격퇴하고 반석리를 불태워 버렸는데, 이에 분개한 노비들은 동학군에 들어가 약탈을 자행하자, 이속들은 모두 흩어

져 도망치고, 관아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노비의 근무를 폐지하고 동족의 자제로 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반석리를 지나면 학봉 마을을 만나게 되는데, 학봉 마을은 주로 이속들이 살던 마을이었다고 하며, 남고산에서 뺏어내린 산세가 마치 쌍학이 날개짓을 하는 형국이라는 데서 연유한 지명이다. 이전 시기의 학봉리는 전주천에서 산쪽으로 들어와 있었으며 그 사이는 대부분 ‘미나리깡’이었다고 한다. 지금의 전주교대부속초등학교 자리는 예전에 ‘사정물’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는 ‘사정(射亭)+물’로 활을 쏘는 정자가 있던 마을이었다. ‘사정물’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지금의 전주남초등학교 자리에 예전에는 소를 도살하던 ‘도수장’이 있었다. 그 길을 따라 곧장 올라가면 ‘공수내’를 만나고 ‘공수내’를 따라 올라가면 ‘흑석골’이다. 흑석골(黑石골)은 한자 뜻 그대로 검은 돌이 많아서 생긴 이름인데, 70년대 무렵까지만 해도 연탄공장들이 많았다고 하며, 물이 좋아서 한지를 만드는 공장들이 들어서기도 했다. 흑석골은 남고산과 고덕산 봉우리로 막혀 있으나 남고산성으로 넘어가는 매봉재, 고덕산을 넘어 구이 평촌, 임실 신평으로 넘어가는 보광재의 길목이었다. 즉 조선시대에 이곳은 근방의 사람들이 전주로 드나들던 주요 관문이었으며 나무꾼이 많던 시절에는 그 길이 달구지가 다닐만큼 넓은 길이었다고 한다. 한편 매봉재에서 내리는 물은 ‘베락수’라는 폭포를 거쳐 내리고, 보광재 쪽에서 내리는 물은 학두암을 지나 용천대라는 폭포를 이루어 흑석골에서 합수하게 되는데, 흑석골의 두무소³⁰⁾는 전주부성 사람

30) 두무소(杜舞沼)는 명나라 이여송의 막료 중 한 사람인 두사청(杜思廳)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이곳에 당도하여 산세를 보다가 명나라 중원의 서주(徐州)와 흡사하다고 감탄하면서 서북쪽의 터진 곳이 있어 수적지(授敵之地)의 형세이며 천혜의 요새라고 경탄한 나머지 스

들의 피서지로 유명했었다고 한다. 두무소를 따라 내리는 물은 공수내(拱水内)가 되는데, 사람들은 공수내를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의 발음과 유사한 데 착상하여 이 다리가 이승을 올 때도 빈손으로 왔듯 저승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다리로 생각해 왔으나 실상, 한자의 뜻대로 예전에 이곳은 물이 많고 물살이 급하여 이곳 공수내에서 센 물살이 굽이치며 포말을 이룬 데서 비롯된 뜻이다.

한편 고덕산, 보광재를 지난 산자락은 장승백이에서 다소 완만히 내려앉는 듯하다가 완산으로 드세게 솟아오른다. 장승백이 역시 구이, 원평 쪽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길목이며, 장승백이에서 전주쪽으로 내려 오다보면 오른편에 ‘미륵댕이’와 ‘제실뜸’을 만난다. 미륵댕이는 이두리라는 총각이 고승을 만나 발복한 후에 땅속에 묻혀 있던 미륵입상을 발견하고 당을 세운 이후 붙여진 이름이다. 제실뜸은 전주최씨의 제실이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완산은 백제시대 전주를 나타내는 지명이었던 만큼 전주의 중심이 되는 산이기도 하고 그 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 또한 전주의 주요한 마을 가운데 하나였다. 마을에 들어서기에 앞서 완산의 산세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완산은 일곱 봉우리가 있어 흔히 완산칠봉이라 불리는데, 이철수(1977)에 따르면 내칠봉과 외칠봉, 좌우칠봉으로 나뉘며, 내칠봉은 수봉, 탄금봉, 매화봉, 옥녀봉, 무학봉, 백운봉, 용두봉으로 나뉘며, 외칠봉은 수봉, 검무봉, 선인봉, 목단봉, 금사봉, 도화봉, 매화봉으로 나뉜다고 한다. 각각의 봉우리가 옥녀가 거문고를 타고, 학이 나르며 하얀 구름에 걸린 용의 머리

스로 취해 춤을 추었다고 한다. 후에 사람들은 두사청이 자연에 취해 진중무를 추었다 하여 이곳을 두무소라 불렀다 한다(전주시지 1997, 120쪽)

가 비치는 듯하다거나 복사꽃 봉오리, 매화꽃, 모란꽃 봉오리 등으로 비유하여 신선세계나 무릉도원을 염두에 둔 명명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옥녀봉 꼭대기의 금송아지 바위에 얹힌 설화 등은 이곳에 넘나들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선인들의 온갖 상상력의 보고이었다. 완산에 대한 소박하지만 주목할 만한 설은 완산이 기러기 형국이어서 마치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어쨌든 항공사진으로 보면 완산칠봉은 아니나 다를까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두 다리를 늘어뜨린 새의 날개짓과 흡사하니 항공사진을 보지 않았을 당시에 그런 혜안을 가졌던 선조들의 통찰력이 결코 황당한 것은 아니었다.

완산의 동남방으로 뻗은 끝 봉우리가 곤지산이다. 이는 주산 건지산과 마주하고 있는 산인데 예전에 이 산의 자락에서 이어진 바위들이 전주천변까지 뻗어 있었고 그 자리가 죄인을 효수하던 곳이어서 초록바위로 불리던 곳이다. 이런 까닭에 비라도 오는 날 저녁에 이곳을 지나려면 모골이 송연하였다고 한다. 완산동은 조선시대 은송리와 곤지리로 나뉘는데, 곤지리는 곤지산 밑 동네를, 은송리(隱松里)는 완산초등학교와 전주천변 사이의 마을을 가리킨다. 곤지리에 는 지금 맷골이라는 전래 지명이 남아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매곡교(梅谷橋)라는 다리가 생겨났지만, 기실 맷골은 뿔골 즉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는 뜻이다. 은송리는 지금의 동완산동 지역으로 골목골목이 미로처럼 좁게 형성되어 그 골목을 걷다보면 예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은송리에는 기령당(예전의 군자정)과 조선시대 말기에 지어진 청학루, 백학루 등의 옛 지명이 남아 있어 나이드신 토박이들 사이에는 청학루 골목, 백학루 골목이라는 옛 지명이 종종 회자되기도 한다.

완산의 능선 하나가 용머리고개로 이어져 다가산, 유연대, 영골산, 청수코테기로 흐르는데, 이 또한 항공사진으로 보면 영락없는 용의 모습이다. 용머리고개는 김제, 금구로 나가는 고개이며, 강감찬 장군과 관련된 설화³¹⁾가 남아있다. 용머리고개에서 다가산 줄기로 감싸여 전주천변 쪽 사이에 있는 동네는 예전에 빙고리(氷庫里) 즉 얼음 창고가 있던 동네이다. 빙고리 옆산은 다가산(多佳山)인데 다가산 너머에 천양정의 전신인 다가정이 있었다. 다가정에서 화산 공동묘지를 넘어가는 고개를 강당재라고 한다. 강당(講堂)은 대체로 유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지어진 집을 의미하므로 이전 시기에 이곳에 강당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되지는 못하였다. 어찌이든 이곳이 강도가 많아서 생긴 이름이라고 하나 이 또한 발음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상상에 불과하다. 다가산과 유연대 사이를 건너며라 부르는 까닭은 화산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연대에는 조선시대 주요 건축물인 희현당이 있었으며 구한말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서양식 교육과 종교를 유포한 중심지가 되어 서양문화가 전주에 발흥하는 발원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유연대에서 어은골산으로 이어지는 산자락은 가운데 산등성이 하나를 두고 두 갈래로 에워싸는 산세를 형성한다. 그 산 아래 전주천변 쪽으로 자리잡은 동네가 도토리곶과 어은골이다. 도토리곶은 산의 지형이 마치 배의 돛대와 닮았다고 하여 ‘돛대곶’로도 불렸다.

31) 강감찬 장군이 이곳에 머물던 해, 가뭄이 몹시 심했던 어느 날 지나가는 초립둥이를 불러들여 이렇게 가뭄이 심한 데 그냥 지나서야 되겠느냐고 호통을 치며 만약 비를 내리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고 호령했다. 그리하여 다음날 비가 내렸는데, 바로 그 초립둥이는 용이 둔갑하여 사람행세를 한 것이었고 비를 내리게 한 뒤 그 용은 이곳에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그 후 강감찬은 그 용을 후히 장사지내 주었다고 한다.

어은골은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들이 은둔했던 은사골로 알려진 곳이며, 숨은 잉어의 혈이 있어서 어은골(魚隱골)로 불린다고 하나, 이미 촌로들 사이에서는 전주천에 있는 고기가 숨었다가는 곳이라 하여 그렇게 불리는 것으로 통한다. 어은골산은 엉골산, 서살미, 엉골뒗산, 서산 등으로 불리며, 이산 끝자락에 진북사가 있다. 진북사는 범바우 앞에 지어진 절이라 하여 범바우절이라고도 불린다. 범바우는 부엉바우라고도 불렸는데 일제시대 발파되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범바우는 특히 검암 칼바우와 서로 마주하며 세력의 균형을 맞추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허두 부분 참조). 진북사(鎭北寺)는 전주의 풍수상 북서부 지역이 허하여 지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비보풍수의 의미에서 건립된 절이다.

‘엉골뒗산’을 지난 산줄기는 ‘바구멀’, ‘잣뜸’을 지나면서 낮은 봉우리를 이루고 다시 세 가닥으로 나뉘며 고샅들을 향해 뻗어 내린다. 서남쪽으로 뻗은 자락은 메너머, 다른 하나는 전룡, 또 다른 한 줄기는 감나뭇골을 형성한다. 감나뭇골에서 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 들어가면 들 가운데 새터와 구석뜸 그리고 바구멀이 있다. 이곳에 여러 마을들이 몰려 있는 까닭은 그 앞으로 펼쳐진 고사평이 있어 농사지을 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구멀은 파구리(波龜里)라고도 하였는데 거북바우가 있어서 생긴 이름이라 한다. 바구멀과 잣뜸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가면 삼거리가 있는데 그 근처를 장고개라 불렀다. 이곳은 메너머, 전룡, 감나뭇골에서 전주부성으로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장이 서기도 하고 주막이 있기도 했던 연유로 형성된 지명이다. 바구멀을 지나 청수코테기가 용머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용의 꼬리 끝자락이 되는 셈이다. 청수코테기 앞쪽에서 전주천과 모래내가 합수하여 가르내를 형성

하게 된다.

3. 행정 명칭의 변화와 전주의 확장

조선시대 말기 전주는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부성의 서남부지역에 조밀하게 형성된 주민 거주지역과 남북으로 뻗은 산자락에 기대어 형성된 크고 작은 마을들이 들어선 아름다운 고도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나라를 잃은 후부터 전주는 식민도시로 전락해가는 과정을 겪으며, 그 아름다운 고도의 위용을 상실하게 된다. 전주의 도시화 과정은 시구개정과 시가지 계획에 의해 전주 부성과 그 주변이 도시화된 시기, 해방과 동란 직후의 공백기, 1960년대 이후의 도심 확장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전주성의 파괴와 식민 시대

전주부성이 그 위용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사건은 우선 동학군의 전주부성 공격에서 비롯된다. 동학군은 전주부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완산칠봉, 다가산, 유연대 등의 능선에 진을 치고 서문밖장이 서는 날 완산칠봉의 야포 공격을 신호탄으로 전주부성을 공격하는데 이 때 관군과 동학군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북문에서 서문을 지나 남문에 이르는 민가뿐만 아니라 성곽의 서반부가 심하게 파괴되었다. 이때 파괴된 성곽은 1907년 전군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도 방치되었으며 을사조약 이후 식민지 수탈의 거점도시인 군산까지 양곡을 수송하기 위해 전군가도가 개설되면서 성곽의 서반부가 철거되게 된다.

성곽의 철거는 비단 그 목적만이 아니었다. 일본인들이 처음 전주에 들어와 거주하게 된 곳은 서문밖, 지금의 다가동 근처 전주천변 지역이었는데, 당시 성안과 성밖은 엄연한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함부로 성 안 출입을 할 수 없었다. 그로 말미암아 주거는 물론 상행위에 지장을 받게 된 일본인들은 전주부성의 서쪽 성곽을 파괴함으로써 성안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1911년에는 남문에서 동문을 거쳐 북문에 이르는 성곽의 동반부마저 철거되고 성곽 철거와 더불어 부성 내의 건물들도 철거되기 시작한다. 1921년 전주 감영은 도청본관이 신축되면서 철거되고 같은 해 비장청마저 매각되어 완산동으로 옮겨져 청학루가 된다. 부영 건물은 1934년 철거되고 그 자리에 군 청사가 들어섰다가 1961년 신축 시청사로 사용된다. 그로 말미암아 전주부성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그 자리에 신축 건물들이 대체 되면서 천년 고도 전주는 식민도시로 전락하는 비운을 맞게 된다.

식민도시화의 합법적 장치는 이른바 1912년 발령된 시구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로 정비와 도로 개설이라는 명목하게 성곽 파괴가 이루어진다. 파괴된 성곽을 따라 도로가 개설되고 개설된 도로를 따라 일본인 중심의 상권이 형성된다. 제2차 시구개정은 1913년에서 1914년까지 두 해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에는 전주우체국에서 북문까지의 노선과 전주우체국에서 남문까지, 서문에서 남문까지, 남문에서 경기전까지의 길들이 만들어진다. 이와 더불어 전주에서 익산간 부정규 노선인 협궤 간이철도가 개설됨으로써 1914년 이른바 경편철도가 개설되고 그 역이 지금의 전매청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14년 전라북도 고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대정정, 본정 등의 왜식 행정 명칭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대정통, 본정통 등의 일본식 지명이 횡행하게 되었다.

〈일제시대 왜식 행정 명칭 변경표〉

구한말	1914년	구한말	1914년
부서면 1,2계 일부	대정정 1정목	부동면 1,2,5계 일부	풍납정
부서면 1,2계 일부	대정정 2정목	부동면 4,6계 일부	화원정
부서면 1,2계 일부	대정정 3정목	부남면 곤지리 은송리 일부	완산정
부서면, 2,3,4계 일부	대정정 4정목	조촌면 상가리 일부	덕진정
부동면, 3,4계 일부	대정정 5정목	부북면 3, 4리 일부	상생정
부동면 6계 일부	대정정 6정목	부북면 노송리 일부	노송정
부동면 6계 일부	대정정 7정목	이동면 검암리 일부	검암정
부남면 2계 일부 부남면 방천리 일부 부서면 4계 일부	본정 1정목	부남면 구석리, 방천리, 부남면 1계, 부동면 1계 일부	대화정
부서면 4계 일부	본정 2정목	이동면 인후리 일부	인후정
부서면 4계 일부	본정 3정목	이동면 서신리 일부	서신정
부서면 4계 일부	본정 4정목	이동면 화한리	화산정
부서면 3, 4계 일부	다가정	부북면 1,3리 일부 부남면 1계 일부	고사정
부서면 2계 일부 부서면 1계 일부	팔달정	부남면 반석리 일부 부남면 사정리 일부	서정
부남면 교동, 한계리, 구석리, 4계 일부	청수정	부북면 3,4리 일부	상생정
이동면 검암리 일부	소화정	*	*

제3차 시구개정은 1924년에서 1934년까지 시행되는데 이 때 기준 가로의 하수도 공사와 기타 시가지의 개보수 공사가 진행된다. 이 시기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전주역의 이전과 25m폭의 광로가 개설된 점이다. 1929년 정규철도가 개설되고 전주역이 이전됨에 따라 북문에서 전주역까지 광로가 개설되며 이 도로에서 같은 폭으로 객사 부근까지 팔달로가 개설된다. 팔달로라는 명칭은 지금의 도청

자리에 있던 팔달루에서 비롯된다. 한편, 북문에서 전주역까지의 도로로는 역전통이라고 불리면서 새로운 상권으로 부상하게 된다. 또한 이와 별개로 1930년대를 전후하여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촌이 형성되는데, 오목대에서 이를 바라보는 것이 전주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무렵 지금의 공원지역과 덕진광장, 전주역 광장(지금의 시청 광장) 등이 공원 지역과 광장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일제시대에 들어 신설된 도로망을 따라 신축된 여러 건축물들은 그 자체가 지명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27년 전북제사주식회사, 1928년 편창 제사방적주식회사가 진북동에 들어서게 되며, 각각 제사공장, 종방 등으로 불렸다. 지금은 그 자리에 우성아파트와 덕진구청이 들어섰다. 1902년 현 전주우체국 자리에 우편수치소가 설치되었다가 1906년 전주 우편국으로 바뀌었으며, 본정 우편국은 다가동 우체국으로 불리다가 최근 청석동 우체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어 1936년 고사동 우체국에 고사정 우편국이 설치된다. 1906년 신흥학교, 1909년 기전학교가 중화산동의 유연대 일대에 설립되고, 전주초등학교의 전신인 전라북도 공립소학교가 1897년에 교동에 세워졌다가 1914년 전주 제일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25년 지금의 전주초등학교 자리로 옮겼다가 1941년 전주 상생학교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다가동에는 사립학교인 양영학교가 세워졌고, 향교 명륜당에는 사립 전주 유치학교가 세워지는데, 이들이 합쳐져서 제2보통학교가 되었다가 후에 완산초등학교가 된다. 전주농고의 전신인 농림학교는 1910년 현 전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자리에 세워졌다가 같은 해 현재의 병무청 자리로 이전하였다가 1911년 전주농업학교로 개칭 1943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된다. 전주상고는

1937년 노송동의 현 위치에 전주공립중학교라는 명칭으로 세워졌다가 명칭만 바뀐 채 지금에 이른다. 1916년 간이공업학교라는 이름으로 교동에 세워졌다가 1938년 공업학교로 명칭을 바꾼 전주공업고등학교는 1950년에 이르러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다. 노송동의 전주고등학교 자리에는 관립 전주고등보통학교가 1919년에 세워졌다.

2) 해방과 동란 직후

해방 직후 전주는 팔달로 일부가 확장 개설되면서 그 주변을 따라 시가지가 형성된다. 그리고 전주가 시로 승격되면서 왜식 행정 명칭이 진행되며, 진밭들이 택지지구로 개발되게 된다. 특히 민족 동란으로 말미암아 생긴 난민들을 위해 농원마을과 숙사가 조성되어 '새 동네'라는 이름으로 집단 정착하게 된다.

1946년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왜식 명칭인 정(町)이 동(洞)으로 바뀌지만 행정구역은 일제시대의 것을 따르게 된다.

〈1946년 행정 명칭 변경표〉

1914년	1946년	1914년	1946년
대정정 1정목	망성동	회원정	회원동
대정정 2정목	선화동	완산정	동완산동
			중완산동
			서완산동
대정정 3정목	중앙동	덕진정	덕진동
대정정 4정목	문화동	상생정	동태평동
			서태평동
대정정 5정목	경동	노송정	동노송동
			중노송동

			남노송동
			서노송동
대정정 6정목	동인동	검암정	동금암동
			서금암동
			남금암동
			북금암동
대정정 7정목	관선동	대화정	남전동
			북전동
본정 1정목	남계동	인후정	인후동
본정 2정목	청석동	서신정	서신동
본정 3정목	서인동	중산정	중산동
본정 4정목	대 동	고사정	남고사동
			북고사동
다가정	다가동	서 정	서학동
팔달정	중 동	소화정	진북동
청수정	교 동	풍남정	풍남동
화산정	남화산동	*	*
	북화산동		

1957년 전주시 조례에 의하여 행정구역 변경과 더불어 다시 한번 행정명칭이 바뀌게 된다.

〈1957년 행정 명칭 변경표〉

1946년	1957년	1946년	1957년
망성동	중앙동 1가	동태평동	태평동 1가
선화동	중앙동 2가	서태평동	태평동 2가
중앙동	중앙동 3가	동노송동	중노송동 1가
중 동	중앙동 4가	중노송동	중노송동 2가
문화동	경원동 1가	남노송동	남노송동
경 동	경원동 2가	서노송동	서노송동
화원동	경원동 3가	동완산동	동완산동 1가
동인동	풍남동 1가	중완산동	동완산동 2가
관선동	풍남동 2가	서완산동	서완산동 1가

풍남동	풍남동 3가	남완산동	서완산동 2가
남전동	전동 1가	동서학동	동서학동 1가
북전동	전동 2가	산성동	동서학동 2가
남계동	전동 3가	서서학동	서서학동
청석동	다가동 1가	북화산동	중화산동 1가
다가동	다가동 2가	중산동	중화산동 2가
서인동	다가동 3가	진북동	진북동
대동	다가동 4가	남금암동	금암동
남고사동	고사동 1가	인후동	인후동 1가
북고사동	고사동 2가	동금암동	인후동 2가
동교동	교동 1가	덕진동	덕진동 1가
서교동	교동 2가	서금암동	덕진동 2가
서신동	서신동	북금암동	덕진동 2가

두 차례에 걸친 행정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골격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을 왜식으로 바꾼 후의 지역 분할 방식을 큰 변화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일제시대의 관행에 대한 철저한 비판 없이 사용해 온 불행한 역사의 일부인 셈이다.

한편, 동란 직후 전주에 유입된 난민의 수는 약 이만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전주시는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형 주택 120호와 도시형 주택 100호를 짓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마을은 농원마을, 숙사 등으로 불렸다. 전주시내에 있는 농원마을은 세 곳이 있는데, 각각 인후동과 교동, 남송동에 있다. 인후동에는 안골 서쪽 산등성이, 교동은 군경묘지 입구 낙수정 마을 앞, 남송동은 참나무정이 옆에 각각 자생적 형태로 마을이 형성된다. 숙사 마을은 인후동에 두 곳, 덕진동에 한 곳이 있었다. 인후동 전주농업고등학교 뒷산에 구숙사가 있고 명짓골 서쪽에 신숙사가 있다. 덕진

동에는 지금의 여성회관 자리에 숙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정비되어 그 형태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혜택마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주 시내 곳곳 완산동, 인후동, 진북동, 교동 등에 정착하게 된다. 완산동은 곤지산 등성이, 인후동은 현재의 보문촌, 교동은 오목대 아래 쌍시암 주변, 진북동은 어은골의 진북사 부근에 난민들이 정착하게 되는데 이 동네들은 새동네라고 불리게 된다.

한편 구한말 전주군에 속하였다가 1957년 전주시로 편입된 전주의 외각 지역의 행정 명칭 변경은 동별로 정리하여 표만 제시하기로 한다.

구한말		1914년		1935년	1957년
전주군 우림면	꽃밭정이	전주군 우림면 석불리	구 화	완주군 우전면 석불리	전주시 평화동 1가
	네거리		묘 동		
	감나뭇골		홍 수		
전주군 난전면	만넛골	전주군 난전면 장천리	장 천	완주군 우전면 장천리	전주시 평화동 2가
	짓 골		지 시		
	구석뜸		구 석		
	매두리		상 구		
	대정리		하 구		
	산정리		대 정		
	문정리	전주군 난전면 문정리	산 정	완주군 우전면 문정리	전주시 평화동 3가
	중평리		문 정		
	부평리		중 평		
	작지리		부 평		
	용와리		작 지		
	장교리		용 와		
	상평리		장 교		
			상 평		

구한말		1914년		1935년	1957년
전주군 우림면	세 내	전주군 우림면 태평리	삼천리	완주군 우전면 태평리	전주시 삼천동 1가
	용흥리		농포리		
	상거마		상거리		
	하거마		하거리		
	만수동	전주군 우림면 계용리	만세리	완주군 우전면 계용리	전주시 삼천동 2가
	우목실		우목리		
	쌍자동		쌍자리		
	함 대		함대리		
	용산리		용산리		
	비아동		가용리		
	장동리	전주군 우림면 안산리	정동리	완주군 우림면 안산리	전주시 삼천동 3가
	석산리		석산리		
	모과동		모과동		
	범안굴		호동		
	삼산리		삼산리		
	능 안		능내리		
	삼 동		도리리		
	장재울	전주군 우림면 송정리	장자동	완주군 우전면 송정리	전주시 효자동 1가
	새 터		신기리		
	송정리		송정		
	신 리		신리		
	신봉리		신봉		
	쌍룡동	전주군 우림면 효자리	쌍용	완주군 우림면 효자리	전주시 효자동 2가
	안행동		안행		
	효자리		효자		
	후곡리		후록		
	구룡리		구룡		
	한절리		한절		
	새 터		신기		
	범암리		호암		
전주군 이동면	신주리	전주군 이동면 홍산리	신주	완주군 우전면 홍산리	전주시 효자동 3가
	봉강리		봉강		
	여 매		호산		
	서우리		서우		
	서중리		서중		
	섯골		용암		
	목고실		속거		
	жат 골		척동		
	마 랫		마전		

구한말		1914년		1935년	1957년
전주군 조촌면	덕촌리	전주군 조촌면 유제리	덕촌	완주군 조촌면 유제리	전주시 팔복동 3가
	감천리		감천		
	신행리		신행		
	버드랑죽		유제		
	비석날	전주군 조촌면 동곡리	예암	완주군 조촌면 동곡리	전주시 팔복동 2가
	가르내		구주리		
	새터				
	매화동		매화		
	반용리		반용		
	유상리		유상		
	학상리		학상		
	신복리	조촌면 신복리	신복	완주군 신복리	팔복동 1 가
	오송리	전주군 조촌면 오송리	오송	완주군 조촌면 오송리	전주시 송천동 1가
	신평리		신평		
	팔학동		팔학동		
	용소리		용리		
	붓 내	전주군 조촌면 시천리	붓내	완주군 조촌면 시천리	전주시 송천동 2가
	동역골		신동		
	버들다리		유교		
	와룡리		와룡		
	용흥리		용흥		
	용소리		용소		
전주군 회포면	진조리	전주군 회포면 전당리	진조	완주군 초포면 전당리	전주시 전미동 1가
	백석리		백석		
	신봉리		신봉		
	은평리		은평		
	연봉리		연봉		
	회룡리	전주군 회포면 미산리	회룡	완주군 초포면 미산리	전주시 전미동 2가
	주정리		주정		
	숨 멀		화리		
	진기리		진기		
	월평리		월평		

구한말		1914년		1935년	1957년
전주군 회포면	배미실	전주군 회포면 신성리	이리	완주군 초포면 신성리	전주시 호성동 1가
	텃골		신정		
	초당		정주		
	만수동		만수		
	섬뜸		행주		
	수막뜸		신주		
	동산리		동산		
전주군 소곡면	방죽안	전주군 초곡면 봉암리	제내	완주군 초포면 봉암리	전주시 호성동 2가
	봉바우		봉암		
	범바우		호암		
	화정리		화정		
	농은리		농은		
전주군 초곡면	고당리	전주군 초곡면 송전리	고당	전주군 초포면 송전리	전주시 호성동 3가
	솔밭뜸		송전		
	용흥리		서주		
	중오리		중오		
	습멀		용주		
	새터		신흥		
	오매		오산		
전주군 용진면	행나무뜸	전주군 용진면 아중리	상중	완주군 용진면 아중리	전주시 우아동 1가
	제전리		재전리		
	용계리		용계리		
	아하리		아하리		
	새터		신동리		
	갓바우		관암리		
	문수굴		무릉리		
	은행다리		인교리		
	석소리	용진면 석소리	석소리	완주군 용진면	우아동 2 가
	새터		새터		
전주군 초곡면	안덕원	초곡면 우방리	안덕리	완주군 초포면 우방리	우아동 3가
	장재리		장자리		
	반암리		반암리		
전주군 부북면	새터	부북면 석소리	신기리		
	백동리		백동리		

1957년 전주시의 행정 구역이 확장된 이래, 전주의 서부는 남고산에서 서살피로 이어지는 산자락에서 고덕산 자락과 모악산에서 황방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로, 동부는 중바우에서 건지산에 이르는 산줄기가 중바우에서 소리갯재로 이어지는 산줄기로 그 품을 넓히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전주의 도시 확장 시기 동안에 전주는 이 지역들을 개발함으로써 대규모 인구유입과 더불어 준 광역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3) 1960년대 이후

60년대 이후 전주는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기는 주로 전주부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주의 도심이 전주의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시기이다. 도시의 확장은 농경지대에 택지가 개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전주의 북부 지역에 있었던 농경지대로, 진밭들, 장랫들, 용산들, 사평들이 있었다. 이 지역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마을들이 사라지고 지명 역시 개발에 밀려 사라지게 된다.

70년도 후반 무렵에는 전주의 동북방 산간 지역의 개발이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개발 당시에 붙여진 지명이 사용되고 있는 육지구가 그것이다. 육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전주역이 현재의 시청 자리에서 현재의 전주역 자리로 옮겨가고 전주 중심을 관통하는 철도로 말미암아 전주의 도심 확장은 가속도가 붙게 된다. 즉, 전주역이 옮겨감에 따라 전주역에서 팔달로까지 백제로가 뚫리고 그 주변 지역의 개발이 가속된다. 또한 팔달로에서 서신지구, 효자지구의 개발 역시 전주역의 이전에서 비롯되어 순차적으로 진행된 전주의 도심 확장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과정을 항공사진을 통해 자연부락이 사라지고 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그림을 중심으로 사라진 자연부락들을 확인해 가기로 한다.

(1) 1960년대 초 진밭들, 장랫들, 용산들, 사평들 개발

60년대 초 진밭들이 구획정리사업이 완료 되면서 택지와 상가지역으로 개발됨으로써, 진밭들이 사라지게 되고, 장랫들도 63년 이후 개발이 착수되어 60년대 말 개발이 완료된다. 당시 장랫들에는 일제시대 종방 자리에 삼양사가 들어서 있었고, 모래내와 전주천이 합류되는 지점 부근에 미군정 시대에 만들어진 비행장이 있었으며, 그 옆에 숲정이 마을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래 그림에서 모래내와 전주천이 만나는 부근에 하얗게 가려진 부분이 장랫들에 있었던 활주로이다.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용산들과 사평들이 건재해 있으며 용산리와 들사평, 떡정 등의 자연부락이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78년의 항공사진에는 용산들과 사평들이 모두 택지로 개발됨에 따라 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용산리, 떡정, 들사평과 사평 등의 자연부락들이 그 원형을 잃어 도시로 개발되어 있는 모습이 위의 그림과 뚜렷하게 대비되어 나타난다.

이 무렵 즉 60년대 중엽에서 70년대 말까지 전주의 곳곳에는 새로운 명칭을 가진 일련의 주택단지들이 조성되는데, 이른바 00촌이 그것이다. 즉, 보문촌, 기자촌, 문화촌, 진안촌, 호반촌, 남노촌 등의 주택지들이 조성되는데, 기자촌과 진안촌은 비교적 자연발생적인 과정을 거쳐 지명으로서 택지로서 기능하게 되는 반면, 남노촌, 문

화촌, 보문촌, 반촌, 호반촌 등은 소규모 택지조성 사업이 시행되면서 관 주도로 붙여진 지명이다. 기자촌은 전주고와 서낭댁이 사이 오른편 언덕 본래는 술때배기라고 불리던 마을에 60년대 이후 기자한 사람이 집을 짓고 살게 되고 후에 두 명의 기자가 그에 합류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진안촌은 진발다리 위쪽 매봉산 동쪽에 진안 사람들이 주로 이곳에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면서 생긴 이름이다. 또한 호반촌은 덕진동의 아랫가르내 앞쪽, 문화촌은 중노송동 공설 운동장이 택지로 개발되면서, 보문촌은 인후동 화장터가 이전된 후 난민이 정착하면서, 반촌은 형무소 이전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붙여진 이름이다.

(2) 육지구 개발과 백제로 개통

육지구라는 지명에 이미 함의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1에서 5지구까지의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육지구만이 지명으로 남게 된다. 육지구는 대략 지금의 전주 시립도서관에서 현 전주역에 이르는 지역을 가리키는데, 육지구의 개발로 말미암아 1981년 전주역이 현 시청 자리에서 현재의 전주역 자리로 옮겨가게 된다. 전주역의 이전은 전주의 확장에 절대적 기여를 한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당시의 항공사진에서 우리는 육지구 개발에 따라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인후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더불어 백제로가 가설되기 전의 명짓골과 구숙사, 신숙사 주변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육지구의 개발 이후 전주역이 이전되고 백제로가 개통된 이후 육지구와 백제로 주변은 그 옛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된다. 백제로가 뚫림에 따라 백제로 주변은 전북대

병원, 완주군청 등 각종 건축물들이 도열하게 되고 그 주변 지역은 모두 택지로 개발되고, 전주역과 서신지구, 삼천지구, 효자지구 등을 잇는 전주의 외각 지역 개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3) 1990년대 이후 서신지구, 삼천지구, 효자지구, 아중지구 개발
육지구 개발과 백제로 개설 이후 서신지구의 개발이 시작되는데, 서신지구의 개발은 백제교 가설, 서신로와 서부우회도로를 기준으로 서부우회도로에서 삼천천까지를 서신1 지구, 서부우회도로에서 전주천까지를 서신2 지구로 나누어 개발되는데, 서신 1지구는 90년대 초반, 2지구는 90년대 중반에 개발된 지역이다. 서신 1지구는 서곡지구로도 불린다.

서신지구가 개발되기 전 이곳은 한일고등학교 주변으로 재뜸, 바구벌, 구석뜸, 감나뭇골, 안터, 새터, 당산, 전용 등의 자연부락과 고삿들, 고사평의 들녘이 있어 전주 북서부 지역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신지구 개발로 말미암아 고삿들 혹은 고사평의 넓은 들녘은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게 되고, 새터, 구석뜸도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그 원형을 잃게 된다. 하지만 그 나머지 마을, 재뜸, 바구벌, 감나뭇골, 안터, 전용 등은 개발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원형이 유지되어 있으나, 서신지구의 개발과 더불어 원래의 모습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 서신지구에는 서신중학교, 서문초등학교, 서천초등학교, E 마트, 의료보험공단 등이 들어서면서 전주 근교의 핵심적인 신도시로 형성되기에 이른다.

근자에 들어, 서신지구가 개발되는 방식으로 효자지구, 삼천지구, 송천지구 등의 개발이 진행되고 아파트 군락이 들어서면서 전주의 외각 도시는 불과 10여년 사이에 매우 빠른 도시 확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늦게 개발이 진행된 아중지구에는 자연부락들의 원형이 89년의 항공사진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기린봉 자락에 위치한 한배미, 마당재 너머의 방중목, 무삼이 방죽, 구충목을 지나 원한배미 그리고 웃가재미, 가운뎃가재미, 아랫가재미, 진버들, 석소리(석수리), 진구령 등이 이 지역에 산재해 있던 자연부락들이다. 지금은 전주시에서 2003년 재정한 길 이름에 그 옛 지명이 남아 있을 뿐 자연부락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시원스럽게 정리된 구획 도로를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전주의 사방 외각 지역이 비슷한 사정이다.

4. 나오며

변화는 모든 것의 본질이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렇다고 해도 가끔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근원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다. 즉 가족, 친구, 고향 등 변화하기 이전의 익숙함 그대로가 그리운 것, 우리는 전통 문화 또한 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옳다거나 그르다거나와 같은 선악, 진리와 거짓 등의 양분적 구도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 편안함 나아가 내가 그의 일부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서 비로소 그 존재 가치가 명확해지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와 그 특성에 대해 나만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생명력 또한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전주의 지명과 그에 배어 있는 정신 또한 수백 년을 넘도록 전주 사람들이 삶의 공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토대로 신중하고 사려 깊게

만들어 온 그 나뭇의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이다. 설령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복원한다 해도 그 명명이 생명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지명의 토대에 대한 근거가 남아 있거나 그에 대한 애정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는다면, 이는 역시 지명의 박제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여행은 박제화 된 지명에 생명을 불어넣고자 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백 년 전의 전주는 남쪽에서부터 솟아오른 봉우리들이 각각 동북, 서북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둘러놓은 산자락들이 병풍처럼 전주부성을 감싸 안고,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초가집들이 촘촘히 들어 있었으며, 성 밖으로는 고샅 고샅에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자연에 순응하며 들어앉은 모습이었다. 이는 후백제 시대 이후 부침을 거듭하여 오다가 조선시대에 들어 건국조의 본향으로서 권위와 품위를 갖춘 조선조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호남을 관장하는 중심도시로 성장하게 된 결과이다. 전주부성을 감싸는 산줄기들은, 마치 상서로운 짐승, 기린이 살고 있고, 쌍학과 기러기가 날며, 용이 제 몸을 길게 늘어뜨려 전주를 웅위하는 것이라고 상상한 데서 각각의 이름이 붙여지게 된다.

전주부성을 둘러 흐르는 전주천을 중심으로, 동편으로는 낙수정에서 흘러내린 물길과 기린봉 북록에서 시작된 모래내가 인근 마을들의 물줄기 되었고, 남쪽으로는 남고산성의 물길을 모아 흐르는 산성천, 남고산, 보광재에서 흘러내린 물이 공수내를 이루어 전주천의 물길을 더하였다. 전주천은 삼천천과 만나 가르내(추천)가 되고 가르내는 고산천과 만나 한내에 이른다. 예전에는 만경강 줄기를 거슬러 전주천까지 배가 드나들었다고 하니 이쯤 되면 쭈뼛거리며 흐르는 지금의 전주천으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만 남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배경으로, 전주는 판소리, 고대소설을 비롯한 품위 있는 문화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호남 제일의 도시로서의 규모와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전라감영과 전주부영, 객사와 경기전은 전주가 단순히 이 근방의 행정 도시일 뿐만 아니라 호남 일대를 관장하는 도시이며, 드넓은 평야 지대의 윤택한 생활환경을 확보한 인근 지역들의 주민들이 이곳을 드나들며 사회 문화적 교류의 장을 형성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전주의 모습은 왜정시대 왜인들이 주도한 식민도시로의 개발과 더불어 그 운명을 다하게 된다. 그것이 개발인지 파괴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수백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전주의 옛 모습이 자취를 잃게 된 것이 그 시기에서 비롯된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만약 조선이 건재한 상태에서 서구화의 유입에 따라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도 조선 건국초의 본향이었던 전주가 이런 방식으로 개발되어 왔을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근대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개발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개발된 지역을 다시 복원하는 일은 개발 그 자체보다 곱절로 힘이 드는 일이다. 그런 맥락에서 개발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점은, 일단 한번 개발이 진행되면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유산들이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할 레테의 강으로 사라진다는 점이다. 그 강을 건너가 버린 조선시대의 전주, 우리는 그 전주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박제화된 지명을 통해 들여다보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개발의 고삐를 제대로 당길 방법을 가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전주박물관(1998), 『옛 사진 속의 전북』, 통천문화사.
- 김규남·이길재(2001), 『지명으로 보는 전주 100년 상』, 신아출판사.
- 김규남·이길재(2002), 『지명으로 보는 전주 100년 하』, 신아출판사.
- 국립지리원(1987), 『지명유래집』, 거성문화인쇄사.
- 전주문화원(2000), 『우리전주 우리설화』, 신아출판사.
- 영인자료(1971), 『호구총수』, 서울대학교 고전총서, 서울대학교 출판사.
- 영인자료(1983), 『호남읍지』, 아세아문화사.
- 이철수(1971), 『완산승경』, 전주청년회의소.
- 장명수(1994),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 전주부(1943), 『전주부사』
- 전주역사박물관(2004),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신아출판사.
- 전주시(1997), 『전주시사』, 전라북도인쇄공업협동조합.
- 조법종 외(1999), 『전주문화유산탐구』, 신아출판사.
- 한글학회(1981), 『한국지명』